



S&P 500 분기 실적 시즌 모니터 26.10.28

실적시즌 27%, 쏠림 확인

2026. 10. 28 조재운 AI Engineer. jaeun.jo@daishin.com

1. 발표 진행도

전체 발표 진행률은 종목수 기준 27.4%, 시가총액 기준 23.7%로 시총 기준이 3.7%p 낮다. 정보기술 섹터는 시총 기준 진행률(4.9%)이 종목수 기준(12.0%)보다 7.1%p 낮아, 지수 영향력이 큰 대형 기술주 발표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. 반대로 부동산(+20.1%p), 필수소비재(+22.2%p), 산업(+5.1%p), 금융(+1.8%p)은 시총 기준 진행률이 종목수 기준을 앞서, 이들 섹터는 대형주가 먼저 발표를 마쳤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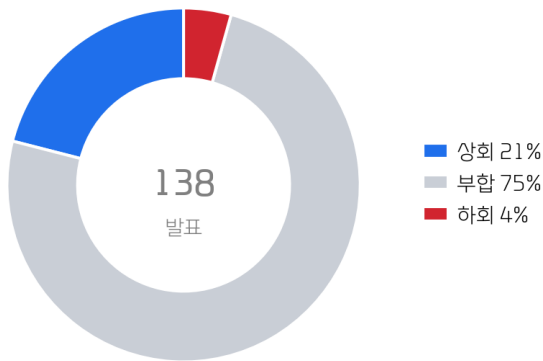
지난주(10/22~10/27)에는 산업에서 UNP · LMT · BA 3개 대형주가 발표되며 가장 활발했고, 금융에서도 AXP · BX가 발표를 마쳤다. 필수소비재는 종목수 기준 11.8%에 불과한 진행률이 코카콜라 · P&G 두 메가캡 발표만으로 시총 기준 34.0%까지 올라섰다.

표 1 S&P 500 실적 발표 현황

섹터	기업수	발표수	진행%	진행%(시총)	상회%	부합%	하회%
S&P 500	503	138	27.4	23.7	21.0	74.6	4.3
금융	76	42	55.3	57.1	21.4	78.6	0.0
산업	83	31	37.3	42.4	16.1	80.7	3.2
소재	24	8	33.3	45.1	12.5	87.5	0.0
통신 서비스	22	6	27.3	21.0	33.3	66.7	0.0
일반 소비재	47	12	25.5	28.8	25.0	58.3	16.7
부동산	30	7	23.3	43.4	0.0	57.1	42.9
에너지	21	4	19.0	11.7	50.0	50.0	0.0
헬스케어	60	11	18.3	30.5	36.4	63.6	0.0
유틸리티	31	4	12.9	18.4	25.0	75.0	0.0
정보 기술	75	9	12.0	4.9	22.2	77.8	0.0
필수 소비재	34	4	11.8	34.0	0.0	100.0	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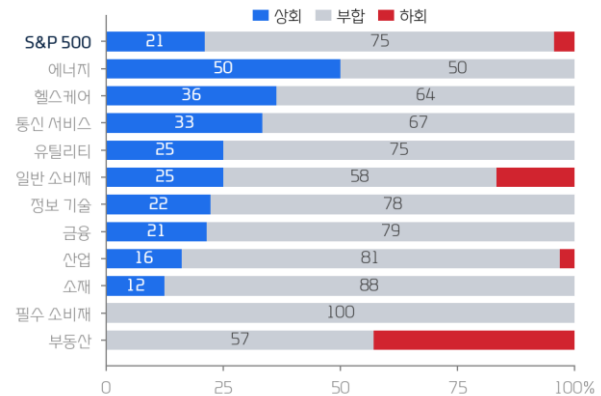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1 실적 발표 결과 분포 (상회·부합·하회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2섹터별 상회·부합·하회 분포 (% , 발표 완료분 기준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2. 지난주 주요 발표 기업

지난주 발표한 시총 상위 종목은 대부분 컨센서스 부합에 머물렀다(코카콜라, P&G, 아메리칸익스프레스, 버라이즌, 유니언퍼시픽, 록히드마틴, 블랙스톤), Total 부합 비율(74.6%)과 같은 흐름이다. 웨스턴디지털은 EPS 4.6달러로 컨센 4.1달러를 상회했고, 보잉은 순이익 -2.7억 달러로 컨센 -1.5억 달러보다 적자가 확대돼 서프라이즈 하위 2위(-75.9%)를 기록했다. 부동산 웰타워 역시 EPS가 컨센을 30%p 하회하며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.

표 2 지난 주 실적 발표 주요 기업

티커	종목	시총(\$B)	섹터	발표일	매출(\$B)	발표 EPS (\$)	컨센 EPS (\$)	EPS 서프 (%)
KO	코카콜라	392.3	필수 소비재	10-27	13.4	\$0.91	\$0.88	3.3
BA	보잉	132.9	산업	10-27	24.2	\$-0.34	\$-0.21	-63.8
VZ	버라이즌	182.1	통신 서비스	10-26	34.3	\$1.31	\$1.27	2.9
WELL	웰타워	166.0	부동산	10-26	3.7	\$0.54	\$0.66	-18.0
AXP	아멕스	209.8	금융	10-23	20.1	\$4.68	\$4.48	4.4
PG	P&G	369.1	필수 소비재	10-22	23.3	\$2.00	\$1.88	6.2
UNP	유니언퍼시픽	178.2	산업	10-22	7.2	\$3.53	\$3.47	1.6
LMT	록히드마틴	143.9	산업	10-22	20.7	\$7.97	\$7.43	7.3
WDC	웨스턴디지털	142.6	정보 기술	10-22	4.4	\$4.64	\$4.09	13.5
BX	블랙스톤	140.5	금융	10-22	3.2	\$1.32	\$1.26	4.4

EPS 서프 = 미실현 지분평가손익 등 특이항목 제외 정상화(I/B/E/S) 기준. 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개별 종목 실적 발표 결과

티커	기업명	EPS 예상→발표	EPS 서프	매출 서프	발표일 등락
FCX	프리포트 맥모란	\$0.82 → \$0.88	+8.0%	+2.5%	+1.2%
V	비자	\$3.23 → \$3.48	+7.6%	+6.5%	-
KO	코카콜라	\$0.88 → \$0.91	+3.3%	+3.6%	-1.6%
BA	보잉	\$-0.25 → \$-0.34	-33.4%	+1.0%	-10.7%

종목별 코멘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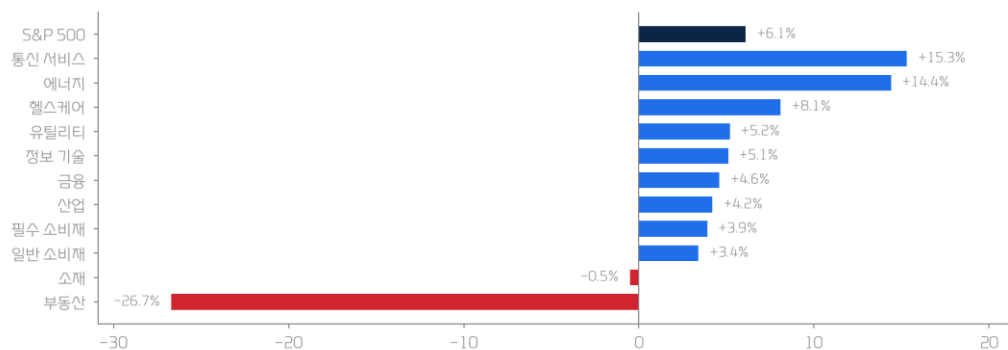
티커	기업명	코멘트
FCX	프리포트 맥모란	프리포트맥모란은 조정 주당순이익(EPS)이 0.88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8.6% 상회했고, 영업현금흐름 가이드선도 85억 달러로 처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 다만 2027년 설비투자(CapEx) 계획이 52억 달러로 다시 늘어나면서 이 같은 호재를 일부 상쇄했습니다.
V	비자	비자는 순매출 121억 달러, 조정 EPS 3.48달러로 각각 13%, 17% 성장했지만 시장 예상치 대비 초과폭은 EPS 기준 1.2%로 줄어들었습니다. 향후 12개월 예상 추가수익비율(NTM PER)이 26.6배로 5년 평균을 웃돌면서 그간의 저평가 매력은 사라진 상태입니다.
KO	코카콜라	코카콜라는 월드컵 특수 기저효과가 사라졌음에도 판매량이 5% 늘어 수요가 견조했고, 2026 회계연도(FY26) 가이드선도 세 분기 연속 상향됐습니다. 다만 향후 12개월 예상 추가수익비율(NTM PE)이 26.6배로 높아진 가운데 목표가 상승 여력은 3%에 그쳐 추가 상승 폭은 제한적입니다.
BA	보잉	보잉은 매출 241.9억 달러로 예상을 넘었지만 핵심 주당순이익은 -0.34달러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. 737 기종의 월 52대 생산 목표는 2027년 하반기로 약 1년 늦춰졌지만, 2029년까지 자유현금흐름(FCF) 100억 달러 달성 경로를 제시하며 설비투자(CapEx) 계획도 늘렸습니다.

3. 섹터별 실적 현황 (발표분)

발표 완료분 Total 기준 매출은 컨센 대비 +1.6%, 순이익은 +6.1%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은 -10.5%로 하회했다. 헬스케어(영업이익 -45.4% vs 순이익 +8.1%), 유틸리티(-56.6% vs +5.2%), 소재(-46.3% vs -0.5%)에서 영업이익 하회가 순이익까지 번지지 않는 패턴이 반복돼, 비영업·세전 항목이 순이익 하단을 지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

서프라이즈 상위 10종목 시총 합은 발표분 전체 시총의 13.5%에 불과해 소수 대형주가 견인하는 구조는 확인되지 않지만, 상위 10종목 중 4개(CINF·GS·TRV·COF)가 금융으로 업종 단위 쏠림은 뚜렷하다.

그림 3 섹터별 컨센서스 대비 순이익 (%·발표분만 합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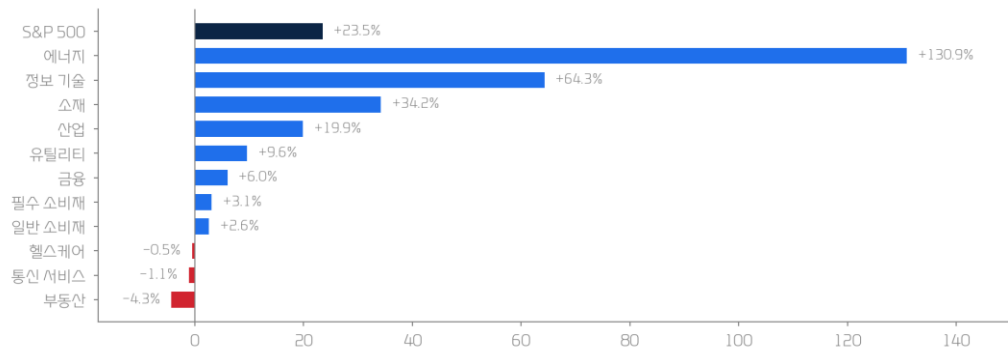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4. 시즌 예상 (Blended)

발표분 Total 영업이익은 컨센 대비 -10.5% 하회했으나, 미발표분을 컨센으로 채운 블렌디드 기준에서는 +1.2% 상회로 전환돼 발표군의 실적과 지수 레벨 전망이 괴리된 구조다. 미발표 비중이 큰 정보기술의 블렌디드 매출 YoY가 +39.6%, 영업이익 YoY가 +66.5%로 Total 평균(매출 +13.9%, 영업이익 +32.0%)을 크게 웃돌아, 아직 발표하지 않은 대형 기술주의 높은 컨센 기대가 지수 전체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다.

그림 4 섹터별 전년동기 대비 순이익 (% · blende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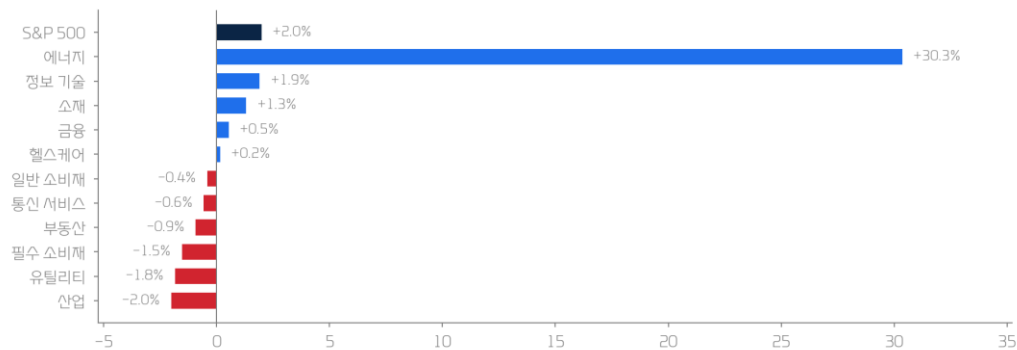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5. FQ1 컨센서스 30일 변화

FQ1 컨센서스는 한 달 전 대비 에너지가 매출 +9.0%, 영업이익 +33.8%, 순이익 +30.3%로 전 섹터 중 가장 크게 상향됐다. 반대로 산업(순이익 -2.0%), 유틸리티(-1.8%), 부동산(-0.9%)은 다음 분기 컨센이 하향 조정됐다.

그림 5 섹터별 FQ1 순이익 컨센서스 30일 변화율 (% · GICS Level 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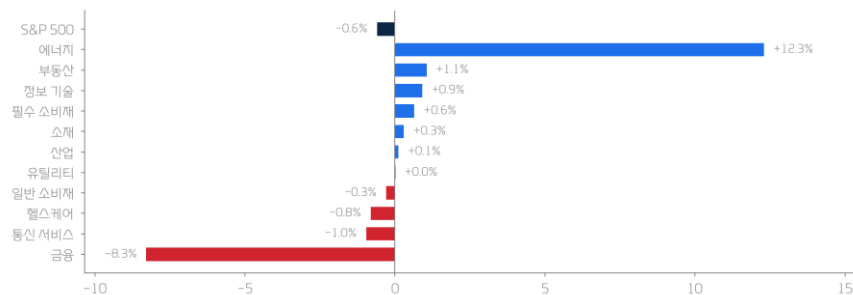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6. FY1 컨센서스 30일 변화

FY1에서도 에너지는 매출 +4.3%, 영업이익 +10.0%, 순이익 +12.3%로 전 지표가 두 자릿수에 근접하게 상향된 유일한 섹터지만, FQ1 상향폭(영업이익 +33.8%)보다는 크게 줄어 단기 모멘텀에 치우친 조정으로 보인다. 금융은 매출(+0.7%) · 영업이익(+0.1%)이 소폭 상향됐음에도 순이익 컨센만 -8.3% 급락해 다른 섹터와 괴리된 조정이 나타났다.

그림 6 섹터별 FY1 순이익 컨센서스 30일 변화율 (% · GICS Level 1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다음 발표 예정

발표일	티커	기업명	섹터	지난분기 EPS	이번 컨센 EPS
10/28	APH	앰페놀	정보 기술	\$0.68	\$0.72
10/28	GEV	GE 베르노바	산업	\$2.47	\$3.97
10/28	ADP	ADP	산업	\$2.64	\$2.77
10/28	V	비자	금융	\$3.32	\$3.44
10/28	STX	시게이트 테크놀로지	정보 기술	\$5.71	\$7.42
10/29	MRK	머크	헬스케어	\$-0.13	\$2.08
10/29	TMUS	티모바일	통신 서비스	\$2.99	\$2.91
10/29	NOW	서비스나우	정보 기술	\$0.90	\$1.02
10/29	KLAC	KLA	정보 기술	\$1.05	\$1.18
10/29	LIN	린데	소재	\$4.50	\$4.52
10/29	BMJ	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	헬스케어	\$2.04	\$1.20
10/29	CAT	캐터필러	산업	\$8.17	\$7.08
10/29	MO	알트리아 그룹	필수소비재	\$1.48	\$1.51
10/29	FTNT	포티넷	정보 기술	\$0.90	\$0.86
10/29	MA	마스터카드	금융	\$5.04	\$5.16
10/29	LLY	일라이 릴리	헬스케어	\$8.38	\$6.49
10/29	GOOG	알파벳	통신 서비스	\$9.11	\$3.00
10/29	MSFT	마이크로소프트	정보 기술	\$4.74	\$4.72
10/30	INTC	인텔	정보 기술	\$0.42	\$0.39
10/30	ABBV	애브비	헬스케어	\$3.65	\$3.75
10/30	XOM	엑손모빌	에너지	\$3.52	\$4.08
10/30	SYK	스트라이커	헬스케어	\$3.69	\$3.55
10/30	GILD	길리어드 사이언스	헬스케어	\$-6.75	\$2.17
10/30	AMZN	아마존	임의소비재	\$5.75	\$1.96
10/30	SNDK	샌디스크	정보 기술	\$39.25	\$46.22
10/30	CVX	세브론	에너지	\$6.06	\$4.88
10/30	SBUX	스타벅스	임의소비재	\$0.85	\$0.72
11/03	VRTX	버텍스 파마슈티컬스	헬스케어	\$4.73	\$4.76
11/03	MPC	마라톤 페트롤리엄	에너지	\$17.73	\$24.32
11/03	AAPL	애플	정보 기술	\$2.02	\$1.99
11/03	ETN	이튼	산업	\$3.15	\$3.54
11/03	PFE	화이자	헬스케어	\$0.77	\$0.73
11/03	PLTR	플란티어 테크놀로지스	정보 기술	\$0.41	\$0.41

발표일	티커	기업명	섹터	지난분기 EPS	이번 컨센 EPS
11/04	MCD	맥도날드	임의소비재	\$3.38	\$3.38
11/04	AMGN	앰젠	헬스케어	\$6.29	\$5.79
11/04	AMD	AMD	정보 기술	\$1.66	\$1.95
11/04	CVS	CVS 헬스	헬스케어	\$2.58	\$1.65
11/04	UBER	우버 테크놀로지스	산업	\$0.81	\$0.96
11/04	ANET	아리스타 네트워크스	정보 기술	\$1.02	\$1.08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